

한국에 상륙한 '중국 현대문학'

주요작가의 대표작 꾸준히 출간... 전집도 기획

최근 들어 '서해안시대' '북방정책'이란 말이 유행하는 것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랜 세월을 걸쳐 우리나라와 너무도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으면서도 49년 공산정권이 들어섬과 함께 단절된 양국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관심의 제고가 곧 중국이란 나라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증대로 이어지기에는 아직도 많은 '건너야 할 강'이 가로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판을 놓고 볼 때 70년대 유신정권의 강압 속에서도 이영희교수와 같은 학자의 선구적 노력으로 중국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의 접근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으며 중국 정치인들에 대한 평전류, 혁명회고담 등도 상당수 나와있다. 이러한 점은 문학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85년부터 꾸준히 중국대륙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들이 출판돼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 현대작가 가운데 기존의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된 사람은 「阿Q正傳」 「광인일기」의 魯迅 뿐이라는 점에서, 또 웬만한 도서목록의 '중국문학편'의 태반을 「삼국지」 「수호지」 같은 고전소설이나 황당한 무협지가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茅盾·巴金·老舍의 대표작 출간돼

胡適이나 林語堂과 같은 우파 문인이 아닌, 중국대륙에서 인정받는 작가의 작품으로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출간된 작품은 10여종. 이들 작품은 크게 두가지로 그 성격을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청말에서 辛亥혁명을 거쳐 일제와의 투쟁, 국민당·공산당 간의 내전으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했던 20세기 전반기의 역사적 격변을 작품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택동 사후 등소평이 정권을 잡으면서 문화혁명 기간에 지식인들이 당했던 수난과 고통, 4인방의 비리를 폭로한 작품이다. 전자가 주로 20년대부터 문필활동을 시작, 42년 毛의 「문예강화」에서 정점에 이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노선을 충실히 추종한 원로작가들의 작품이라면, 후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문단에 발을 디딘 중견작가들의 작품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먼저 전자에 속하는 작품을 살펴보면 노신과 함께 30년 좌익작가연맹을 결성, 그뒤 중국 현대문학의 기틀과 방향점을 구축한 茅盾의 「子夜」(金河林 옮김, 한울)를 들 수 있다.



茅盾



老舍



巴金



古華

「子夜」란 새벽이 오기 직전 더욱 짙은 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작품은 30년대 중국 사회의 복잡한 갈등과 혁명 주체세력의 변화를 조명한 대작이다.

아울러 현대 중국문단의 거목이며 노벨문학상 후보 물망에도 오른 바 있는 巴金의 작품으로는, 봉건과정의 해체과정을 극명하게 그려 발표 당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家」

있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들 거목급 작가들 대부분이 毛정권의 「反우파투쟁」의 희생이 되었다는 점이다. 연안시절 문예정풍에 의해 일찌감치 숙청당한 蕭軍은 물론, 巴金은 문화혁명 당시 하방당했고 老舍는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문화혁명의 수난 탁월하게 묘사한 「芙蓉鎮」

「지식인의 수난기」 「문화의 황폐기」라 불리웠던 문화혁명은 76년 毛의 죽음과 4인방의 몰락으로 종결되었지만 그것이 드리운 그림자는 너무도 길었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이른바 「상흔문학」으로서, 77년부터 대두한 이 흐름은 문화적 해빙기를 타고 문화혁명이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료주의의 병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古戀」(박재연 옮김, 백산서당), 「상흔」(박재연 옮김, 세계), 「작사량」(權德周 옮김, 文潮社) 등의 단편집은 수록된 작품이 중복되긴 하지만 毛사망 이후의 중국 사회의 내부사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문제제기적 작품들로 주목을 모은다.

이처럼 중국 현대문학은 공산정권 성립까지의 영웅적 투쟁과 문화혁명의 명암이라는 상반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최근 출간된 두권의 소설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강서의 신진작가 라선의 근작으로서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우리말로 옮겨 펴낸 작품을 이곳에서 다시 펴낸 「매화」(물결)가 모택동의 대장정에 합류하지 못하고 중국 남부의 한 산에 고립된 홍군유격대의 투쟁을 그리고 있다면, 「茅盾문학상」 제1회 수상자인 古華의 「芙蓉鎮」(우동완 옮김, 삼중당)은 공산정권 수립 이후 중국 남부 오지의 한 마을을 무대로 정치적 폭풍 앞에 부유하는 인간군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문학과 그 전후시기 전체를 매우 출중하게 재현한 「芙蓉鎮」은 작은 마을을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계가 휘말렸던 지난 시절의 각종 사건과 문제점, 힘없는 민중의 비애를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현대소설의 번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詩분야는 여전히 적조한 편이다. 85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艾青의 시집이 한울(「들판에 불을 놓아」), 한겨레(「기뻐 웃는 불꽃이여」), 한마당(「중국의 땅에 눈이 내리고」) 세곳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을 뿐이다.

「중국현대 문학전집」도 출간 예정

80년대 중반 이후 이처럼 중국 현대문학작품이 꾸준히 번역·출판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일 뿐 중국문학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이르기까지엔 아직도 요원한 느낌이다. 그런 점에서 한마당과 중앙일보사 출판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전집물은 관심을 모은다.

한마당에서 기획하고 있는 「세계프로문학선집」엔 모두 11권의 중국 현대문학이 소개될 예정이다. 「모스크바를 가다」 「붉은 깃발의 내력」 「소년 표류자」 「어머니」 「암록강 위에서」 「불」 등의 작품은 중국혁명의 간고한 투쟁과정을 여실히 드러낸 작품들로서, 비슷한 역사적 과정을 밟아온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사가 기획하고 있는 「중국현대문학전집」은 노신에서부터 80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의 시대별 대표작을 총망라한 것으로 이 분야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을 이룰 예정이다. 소설 17권, 희곡·시·문학이론 각 1권씩 총20권에 달하며, 편집위원으로는 허세욱(고려대), 김시준(서울대), 성민엽(충북대), 유중하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시준교수는 이 전집이 발간되면 중국문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편향된 시각이 어느 정도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서구문학만을 과도하게 섭취해온 우리 문학에도 새로운 자극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남진우 기자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점진적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중국인들의 심경을 울렸던 문학작품을 읽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80년대 중반기부터 꾸준히 번역·소개된 중국 현대문학은 다양한 울림과 진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최보섭 옮김, 청람)와 개화기 젊은이들의 방황과 사랑, 혁명에 동참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애정삼부곡」(박수인 옮김, 일월서각)이 나와 있으며, 老舍의 작품으로는 북경 인력거꾼의 불쌍한 삶을 그린 「루어투어시앙쯔」(최영애 옮김, 통나무)가 있다. 특히 이 작품의 번역본엔 철학자 김용옥씨의 장문의 해제가 붙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 웅대한 구상력과 섬세한 휴머니즘을 결합, 각광을 받은 蕭軍의 처녀작 「八月의 鄉村」(박재연 옮김, 백산서당)과 장개석정부에 의해 사형당한 노동운동가의 정열적인 삶과 투쟁을 그린 錢小惠의 「내 영혼 대륙에 묻어」(이승민 옮김, 백산서당), 만주사변에서 12·9학생운동에 이르는 파란의 5년을 그린 楊沫의 「피어라 들꽃」(박재연 옮김, 지양사) 등이 번역·출간되어 20년대 노신 이후 60여년간 단절되었던 중국문학의 맥을 이어주고